日, 운력 체험으로 일상 번뇌 날리다

진언종 사찰서 '작무체험' 화제
다양한 대중들 사찰 방문 유도
사소하지만 사찰서 중요한 작업
"땀 흘리는 작업에 성취감 느껴"

박영빈 객원기자


사찰의 작지만 소중한 업무들을 체험하는 '작무활동'에 참가한 사람들. 사진출처=주니치 신문

일반 대중들이 불교와 사찰을 가깝게 느끼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일본에서 이색적인 사찰체험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스님들이 경내에서 작업하는 다양한 운력과 잡무를 직접 체험하며 일상의 번뇌와 잡념을 날리는 체험인 '작무(作務)활동'이 인기다. 지난 6월 10일 일본의 '주니치 신문'은 이 이색 체험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후쿠이현(福井縣) 아와라시(芦原市)에 소재한 진언종 사찰 안라쿠지(安樂寺)는 1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이다. 현 주지인 스기모토 세이한 스님은 본래 오사카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던 중 인연이 닿아 지난 2020년 이곳에 오게 됐다.

스님은 "나 역시 본가가 사찰이지만 지금과 같은 사찰제도와 운영방식으론 장래가 어둡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스님은 "전통적으로 지역에 묶여있는 일본 사찰제도의 특성상, 나처럼 혈연이나 지연이 아닌 새로운 인연의 스님이 주지로 오기는 힘들다"며 좀 더 광범위고 다양한 대중들이 절에 발걸음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절을 부흥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했다. 우선은 주민들을 절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내 바이올린 콘서트, 사찰요리 교실, 야외 석불 청소 등을 개최했다. 지난해 열렸던 야외 석불 청소에는 현 내 주민뿐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참가자가 방문했다. 지난 4월 말에 시작된 '작무활동'은 이러한 체험의 연장선으로 사찰에서 스님들이 행하는 사찰 일들을 체험하는 것이다. 예불이나 좌선과 같은 종교적인 활동이 아닌, 마당쓸기나 불기 닦기와 같은 사소하지만 사찰에는 중요한 작업들이다.

세이한 스님은 "사찰의 잡무를 뜻하는 작무에는 단순한 작업이 많아, 잡념을 떨치기 쉽다"면서 "이런 점에서 사찰에서의 모든 활동이 일상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과, 사찰과 불교를 좀 더 가까이 느껴주길 바란다"며 체험활동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 진행된 작무활동은 사찰의 불기를 닦는 작업이었다. 법당 마루에 앉아 10여 종류의 금속 불기들을 천이나 칫솔을 이용해 연마제로 닦아 나간다. 스님의 시범을 시작으로 남녀 5인의 참가자들은 1인당 개수를 정해 2시간 동안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을 마친 후에는 작은 좌복을 이용한 스트레칭과 명상체험이 이어졌다.

친구와 함께 왔다는 20대의 여성은 "무념무상으로 집중할 수 있어서 기분 좋았다"면서 "또 생각보다 땀을 흘리면서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성취감도 느꼈다"고 말했다. 세이한 스님은 "작무체험은 절의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을 체험한다는 점과 함께, 실제 절의 잡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찰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항상 일손이 부족한 사찰운영 차원에서도 일거양득의 활동이라고 전했다.

월 1회의 간격으로 개최하는 작무활동은 사찰에서 필요한 운력활동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다음 활동은 경내 전각들을 청소할 예정이다.

세이한 스님은 "청소 작무를 예로 들면 자신이 힘을 써서 청소하는 만큼 깨끗해지는 결과가 눈에 보이기 쉽다"면서 "현대의 일에서는 실감하기 어려운 부분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묘미"라고 말했다.

日 스님들, 불교용어 없이 즉흥설법 나서

관객들에게 주제어 받아, 용어의 중요성 체감


불교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설법에 나선 요진 스님. 사진출처=코베신문

흔히 한문용어가 많아 어렵다고 하는 설법. 이러한 설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등장했다. 관객들에게 주제어를 받고, 불교용어를 모두 금지한 채 즉흥설법을 이어가는 이벤트가 일본에서 열렸다.

6월 12일 일본의 '고베신문'은 젊은 스님들을 주축으로 진행된 즉흥설법 이벤트에 대해 보도했다.

불교 종파간의 연결, 지역과 대중이 불교에 거리감을 완화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젊은 스님들이 모였다. 도쿄에서 불교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하는 단체인 '불교 우물가 토크'와 고베시의 천년고찰 스마데라(須磨寺)가 6월 12일 공동 주최한 이번 즉흥설법 이벤트는 불교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설법에 나선 스님들은 스마데라의 요진 스님, 교토 다이코지(大行寺)의 에이게츠 스님, 오사카 코보지(弘法寺)의 코한 스님이 나섰다. 모두 30~50대 초반의 청장년 스님들이다. 관객들로부터 나온 주제어는 '목숨' '존 레논' '빛' '미소' '자원봉사'라는 전혀 관련 없는 5개의 단어.

심사위원을 맡은 스님과 학자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불교용어가 모두 금지된 법문이 시작됐다. 어려운 전문용어는 물론 '부처님'이나 '스님', '불법'과 같은 단순한 용어도 모두 금지라는 조건에 법문에 나선 스님들이 난색을 표했다.

석가모니라는 말을 쓰려다 황급히 "2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난 분"이라고 외치고, 불경이라는 말 대신 회의장 뒤의 불상을 가리키며 "이 분이 가르친 것을 모아서 정리한 책"이라고 말하는 등 좌중에서는 스님들의 새로운 표현에 연신 웃음이 터졌다. 한 스님은 무의식중에 '신도', '시주자'와 같은 용어를 연발하면서 심사위원들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3명의 스님들이 진땀을 빼며 설법을 마치자 심사위원인 스님들이 법문의 내용을 되돌아보며 일반 대중들로서는 알기 어려운 불교용어들을 지적하고 그 유래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의 반응은 신선했다. 한 여성은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떤 용어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욱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며 계속해서 이벤트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신을 전문 상담가라고 밝힌 50대의 남성 참가자는 "말을 돌리다 보니 오히려 본질이 전해지기 어려운 일도 있음을 체감했다"면서 "편하게 써오던 불교용어들을 더욱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학술협, 불교학 연구자에 연구지원

연구·논문·번역 부문 20명
비영리 '로버트재단'서 지원

미국학술협회가 불교학 연구자들을 올해의 연구자로 선정, 학술연구지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6월 7일 온라인 금융뉴스 '야후 파이낸스'와 불교 전문 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미국학술협회(ACLS)의 불교학 연구자 선정 및 학술 연구지원금 수여 소식을 전했다.

미국학술협회는 불교학에서 뛰어난 연구와 논문, 번역 3개의 부문으로 나눠 총 20명의 학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자들에게는 현장 연구, 기록, 집필에 사용할 수 있는 3만 달러(한화 약 3800만 원)의 연구지원금이 전달됐다. 선정자들은 미국과 유럽 각 대학을 대표하는 신진 불교학자부터 중견학자까지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 연구주제도 초기불교부터 현대불교까지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 이중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선정된 박사과정의 조난단.C.포이어는 한국의 군종불교제도에 대한 연구로 연구비를 받게 됐다.

이 외에 특별히 대학에서 이미 불교학교수로 재직 중인 5인의 연구자에게는 현재 주목받는 연구와 저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7만 달러(한화 약 9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외에 불교학 원전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연구자와 프로젝트에 각각 미화 5만 달러(한화 약 640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지원됐다.

미국학술협회의 회장인 조이 코널리는 "미국학술협회는 불교 연구에 대한 세계적인 관점을 인상적인 범위의 주제로 이끌어주는 특별한 동료들과 지원자들을 지원하게 돼 자랑스럽다. 많은 인문주의 학자들에게 불안정한 시기, 우리는 로버트 재단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부생, 나아가 교실 너머 세계의 청중들에게 불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印, 몽골에 문화재 교류 대표단 파견

인도박물관 소장품 전시위해
모디 총리 "외교 관계 구축"


비하르주의 불교유물이 담긴 의장용 상자. 사진출처=데칸헤럴드

인도 정부가 몽골과의 문화 외교를 위해 문화재교류 대표단을 몽골에 파견해 화제다. 지난 6월 11일 인도의 영어 일간지 '데칸헤럴드'는 인도 정부가 대표단을 몽골에 파견한 소식을 전했다.

인도는 몽골과의 문화외교를 위해 키렌 리지주 법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25명의 문화재 교류 대표단을 구성, 인도 비하르주에서 발굴된 불교유물과 함께 파견했다. 대표단은 오는 14일 몽골에 도착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간단사원의 바트사가안 사원에 11일간의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화재 교류에 포함된 비하르주의 불교유물은 인도국립박물관이 소장 중인 유물들로 1898년 영국고고학자들에 의해 부처님의 고향으로 알려진 고대도시 카필라바스투 유적에서 발굴된 것들이다. 리지주 법무장관은 "카필바스투의 유물로 알려진 불교유물은 발굴 이후 단 한 번도 박물관 밖으로 반출된 역사가 없다. 그러나 몽골정부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우리는 전시를 위해 이 유물들을 문화재 교류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일주일간 전시할 예정이었으나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전시 기간이 11일로 연장됐다"고 전했다.

리지주 법무장관은 이어 "불교 문화재 교류는 모디 총리가 문화이웃이라고 불렀던 몽골과의 외교 관계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재 교류 대표단의 선발대가 몽골에 파견돼 간단사원의 공간을 살펴보았으며 유물은 인도국립박물관의 수장고와 동일한 온습도 통제 전시장에 넣어 공개될 예정"이라며 "또한 이 유물은 국빈과 동일한 자격으로 예후를 받으며 두 개의 방탄 케이스와 의장용 상자에 포장해 인도 공군 조종사가 조종하는 수송기를 통해 몽골까지 운반될 것"이라고 전했다. 몽골정부는 인도정부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불교유물들은 몽골 문화부 장관의 영접을 받을 것이며, 공항에서 전시장인 간단사원까지 몽골불교의 전통적인 이운의식을 통해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만복승복(가사)

{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KBS '6시 내고향' TV방영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